

Music Choices of GIM(Guided Imagery and Music) Therapist in GIM: Narrative Literature Review

Kim, Young Shi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review the music choices of GIM therapists in GIM. Seven databases and nine music therapy journals were searched with keywords such as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Helen Bonny”, “Bonny method”, “Music and Imagery” and “BMGIM” between 1964 to 2013. Every abstract was confirmed to see whether it meets this research topic. 12 of 126 articles that described the reasons for music choices were selected. It is the result of narrative literature review that GIM therapists chose music to match clients’ qualities of moods, emotions, feelings related with issues and clients’ themes in therapy. In 5 articles among the 12 articles, authors chose music with considering music elements analytically to match clients’ states. Reasonable explanations for music choice were reviewed in these 5 articles. There were limitations to obtain common facts between articles because most of 126 articles were case studies which described from therapists’s point of view in a qualitative way. A more fundamental research is required to obtain rationales of music choices in GIM as a music-centered music psychotherapy for the further research.

Keywords : GIM(Guided imagery and music), Imagery, Music choice, Narrative Literature Review

* A candidate for Ph. D. of Music Therapy Department, Ewha Womans University
Level 3 trainee in Ewha-Anna Maria GIM training program (mtherapy4u@gmail.com)

GIM(Guided Imagery and Music)에서 GIM 치료사의 음악 선택에 관한 내러티브 문헌 고찰

김영실*

본 연구는 GIM 음악치료사의 GIM 치료에서의 음악선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7개와 음악치료 전문학술지 9개를 대상으로 1964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Helen Bonny”, “Bonny method”, “Music and Imagery”, “BMGIM”였다. 초기 검색된 모든 연구의 초록을 확인하여 1차 선정된 126개의 연구에서 음악선택이 명시된 12개의 연구를 최종 선택하여 내러티브 문헌 고찰을 하였다. 12개의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GIM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이슈와 관련된 기분, 정서, 느낌의 특색(quality), 치료에서 다루어지는 내담자의 주제(theme)와 연관성이 있는 음악을 선택하였다. 이중 특히 5개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상태(state)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음악을 여러 음악요소를 분석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보다 개연성을 가진 음악선택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고찰을 위해 선택된 126개의 연구 대부분은 사례연구로 연구자 고유의 관점으로 질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연구들 간의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음악중심의 심층 음악심리치료기법인 GIM에서 음악선택에 대한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다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안내된 음악과 심상(GIM), 심상, 음악선택, 내러티브 문헌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박사과정 수료

Ewha-Anna Maria GIM 훈련 프로그램의 Level 3 훈련원 (mtherapy4u@gmail.com)

I. 서론

GIM(Guided Imagery and Music)은 Helen Bonny의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개발된 심층 음악 심리치료 방법이다(정현주 외, 2006). 내담자는 GIM 치료사의 언어적 안내인 인덕션(induction)과 함께 주의(attention)의 초점을 외부에서 자기 내면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전치된 의식 즉, ASC(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한다. ASC는 백일몽을 꾸거나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작업을 할 때, 잠들기 직전에 경험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자기방어를 약화하여 원활히 무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왔다. GIM 치료사는 내담자의 치료적 필요를 고려하여 음악을 선택하고, 내담자는 전치된 의식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차원, 다감각적, 연속적인 심상(imagery)을 경험하게 된다(Bonny, 1999; Goldberg, 1992; Kasayka, 1991)

심상은 GIM에서 내담자의 자기이해를 위한 중요한 치료 재료(material)가 된다. 이러한 심상경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음악으로 심상경험을 촉진할 뿐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게 한다(Bonny, 1999; Goldberg, 1992; Kasayka, 1991). 음악은 주치료사(primary therapist)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의 심상을 일으키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Summer, 1998). 내담자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이슈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내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여러 자아와 만날 수 있다(Bonny, 1989; Kenny, 1987). 치료사와 함께 심상경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슈와 심상경험을 연관 짓고 반영(reflection)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상경험에 대한 통찰을 얻고, 치유의 경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획득 더 나아가 영적,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Bonde, 2007; Toomey, 1997).

GIM에서 사용되는 음악프로그램은 Helen Bonny의 LSD(Lysergic Acid Diethylamid) 심리치료에서 음악치료사로서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현재에는 금지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LSD 심리치료는 1940~1960년대 미국에서 성행하였으며, 환자들에게 약물이 주는 환각경험을 통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초월적 경험을 제공하여 자아개발, 잠재의식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졌다. LSD 약물치료 세션과 이후 심리치료 세션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Bonny & Pahnke, 1972), 치료대상 환자마다 약물로 인한 환각경험의 개인차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경험의 정도를 유지, 조절하여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구조가 분명한 클래식 음악이 함께 제공되었다. 이러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이루어진 GIM 음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Bruscia & Grocke, 2002).

음악 프로그램은 경험의 강도의 측면에서 6개의 단계를 고려하여 음악이 배치되었는데, 시작전(pre-onset), 시작(onset), 경험의 고조(build to peak), 최고조(peak), 안정화(stabilization), 돌아오는(return)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는 경험의 특성에 맞도록 각기 다른 에너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이 배치되었고, 내담자는 심상경험에 있어 방향성과 정서적인 흐름(affective contour)을 경험하게 된다. 각 음악은 음고, 음색, 조성, 빠르기, 리듬, 멜로디와 화성 등의 음악

요소를 분석적으로 고려하여 선곡되었고, 감상자는 이러한 개개의 음악요소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우세한 음악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Bonny, 2002).

GIM 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슈, 내담자의 심리정서 상태, 치료에서의 주제와 연결성을 가지고 음악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사용해왔다. 치료사는 각 치료세션마다 초기에 내담자의 이슈, 이슈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반응, 에너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음악을 선택하게 된다. Bonny(1998)는 적절한 음악선택을 위해 하나의 음악을 음악의 요소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고려한 후 음악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내담자의 심리정서 상태를 적절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음악선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공감과 공명(resonance)을 가능하게 하며(Altshuler, 1945; Bunt, 1994; Gouk, 2001) 음악 요소가 잘 통합된 음악프로그램이 GIM 내담자의 기분(moods)에 적절하게 제공될 경우, 내담자는 더 깊은 심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Bonny, 1998).

반면, GIM에서의 음악선택이 언제나 긍정적인 치료결과와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팝, 락, 재즈 등의 대중음악 범주의 곡을 사용할 경우 감상자는 내면의 개인 경험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심상경험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Bonny & Tansill, 1977; Summer, 1998). 또한 GIM에서 음악 감상 시 내담자의 선호곡을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를 ASC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치료과정에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Summer, 2008). 음악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담자의 에너지를 적절히 담아주지 못하고 치료의 초점이 벗어나기도 하였다(Clarkson, 1994).

GIM에서의 사용되는 음악의 종류, 음악선택의 방법과 내용은 치료기법이 개발된 초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Muller, 2010). 한 세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수, 음악프로그램의 길이, 응용된 세션 형태, 클래식 외의 다양한 음악장르의 사용, 기존 음악프로그램의 곡 중에서 일부만을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되어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선택된 응용된 여러 형태의 음악사용 역시 GIM 세션에서 내담자가 심상경험을 하고 통찰을 얻는데 있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Clements-Cortés, 2013; Muller, 2010; Paik-Maier, 2010; Schulberg, 1997; Summer, 2011).

GIM에서의 음악선택은 치료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치료 과정인 반면, '어떻게' 음악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치료적 근거로서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있기 보다는 매회기 치료세션 초기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줄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치료사의 직관에 의해 결정된다(Bonny, 2002). 반면 GIM에서 치료사의 음악선택은 곧 GIM 치료사의 전문성을 말하며(Summer, 2010) GIM 치료사가 되기 위해 치료사 훈련을 받는 훈련원(trainee)들은 임상 훈련을 위한 GIM 세션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 내에 치료에서 음악 선택에 대한 훈련(Summer, 2002)이 포함되기도 하나 실제 임상에서의 구체적 음악선택 방법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M 치료사들의 임상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GIM 임상 실체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므로 음악중심의 음악심리치료기법인 GIM에서 중요한 치료매개인 음악사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악선택에 있어 GIM 치료사가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GIM 치료에서 GIM치료사들은 어떻게 음악을 선택하는가?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문헌고찰(Narrative Literature Review)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GIM 임상에서의 GIM 치료사의 음악선택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문헌 고찰 연구는 주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기존의 문헌 자료를 취합, 분류, 기술하여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Fink, 2005). 내러티브 문헌 고찰 연구는 통계적으로 정량화된 결과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기술적 임상 연구들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Accordino, Comer, & Heller, 2007; Hilliard, 2005; Krout, 2007; Sherratt, Thornton, & Hatton, 2004) 치료의 과정과 결과의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 GIM 임상에 대한 연구에 적합할 수 있다.

GIM 치료의 실체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GIM 사례 연구의 대부분은 GIM을 통한 내담자의 개인적 성장과 치유에 초점이 맞춰 질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치료사의 관점으로 내담자의 이슈와 치료 필요를 규명하고 세션의 흐름에 따른 내담자 심상경험과 정서경험의 변화, 성장(transformation)을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 치료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Grocke, 2010). 대부분의 경우 저자는 GIM 치료 과정에서의 내담자가 보여주는 현상, 경험에 대하여 치료사 각자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GIM 사례 연구에 대한 고찰연구 방식으로 내러티브 문헌 고찰이 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GIM 분야의 문헌고찰 연구로는 Toomey(1997)와 Grocke(2010)의 연구가 있다. Toomey는 1995년까지의 GIM에 관한 학술지 논문들과 출판되지 않은 상급(advanced) GIM 훈련원들의 문헌 총 142개를 고찰하였다. GIM 문헌 다수에서는 다른 치료와 연관 지으며 GIM의 치료 근거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개인 임상사례에서 기술된 다양한 치료적 결과를 통틀어 GIM의 치료 효과를 개인적 성장과 치유, 영적 성장이라고 요약하였다. 다수의 논문에서 GIM 치료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Toomey의 문헌고찰연구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Grocke(2010)는 GIM의 분야의 연구방법, 특정 진단명을 가진 내담자들에 대한 GIM 치료사들의 치료접근과 경험의 과정, GIM 치료 구조의 변형/적용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논문의 후반 부분에 음악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임상 적용을 위해 분석적으로 음악을 듣는 방법, 음악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으로 기술한 연구 등을 분류하고 있으나 음악의 실제적인 선택 이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았다.

2. 자료검색 과정

본 연구에서는 GIM 임상에서의 음악사용에 관한 문헌고찰의 기간은 1964년에서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964년은 Journal of Music Therapy 1권 1호가 발행되면서 음악치료분야에서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음악치료 분야의 논문들이 전문학술지를 통해 출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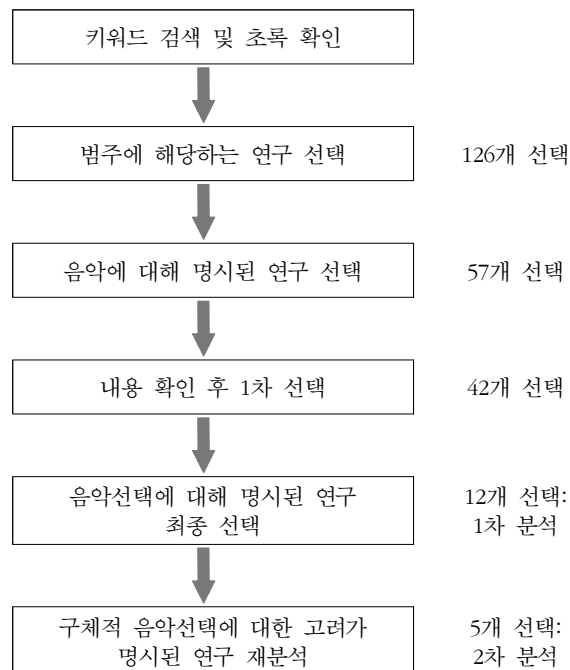
학술지 검색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음악치료 분야 학술지를 직접 확인하며 검색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술지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Eric, PubMed, Scopus, CINAHL, PsycINFO, EBSCO, ProQuest를 선정하여 앞서 언급한 키워드 검색 및 초록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인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Journal of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Voice: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를 대상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주요 음악치료 학술지의 경우, “GIM”, “Guided Imagery and Music”, “Bonny method” 등의 단어가 명시되지 않은 GIM 임상연구가 게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 자료의 목차와 해당 논문을 확인하면서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문헌고찰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 논문을 선택하였다.

자료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Helen Bonny”, “Bonny method”, “Music and Imagery”, “BMGIM”이 사용되었다. 키워드 중 하나인 “Guided Imagery and Music”으로 검색시 GI(Guided Imagery)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GI(Guided Imagery) 기법은 대상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시각적 상(像)을 떠올리게 하며 부적정서를 감소시켜 심리,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강화를 목표로 한다(Kapoor, Bray, & Kehle, 2010; Thelwell & Greenless, 2003; Utay & Miller, 2006), 심리치료, 간호학,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GI기법 적용시 음악사용은 필수적 요인으로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간호 분야에서는 환자의 불안감소를 목표로 하는 긴장이완을 위해 녹음된 음악을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다(Jallo, Ruiz, Elswick, & French, 2014). GIM과는 세션의 구조, 음악사용, 심상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GI 관련 모든 논문의 초록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자료검색에서 GIM과 함께 검색된 MI(Music and Imagery)는 GIM의 응용된 형태로 그룹치료에 GIM을 적용하기 위해 Summer(2002)가 개발하였다. MI에서는 치료의 목표와 음악과 심상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지지적, 재교육적, 재구성적 접근으로 나뉘는데, GIM 치료사는 치료 수준에 따라 음악을 구분하여 선택하게 된다(정현주 외, 2006). GIM에서는 미리 고안된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속적으로 듣게 되는 것과 달리 MI에서 내담자는 한곡 혹은 한곡 이상의 곡을 심상경험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치료사의 언어적 안내가 함께 제시된다(Summer, 2009). 이때의 언어적 안내는 내담자의 심상과 음악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중심적(music-centered) 접근으로 제공되는데, 음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심상 경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MI는 음악사용에 있어서 기존의 GIM과 차이점이 있으나 음악과 심상을 활용하여 의식을 확장하고 개인의 통찰을 촉진하는 심층심리치료방법으로서 GIM의 정의에 포함된다(Bruscia, 2002).

제목과 초록, 초록의 키워드를 통해 일차적으로 선별된 논문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을 선택하였고 이 중 음악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42개의 연구를 선별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음악선택에 대하여 명시된 연구 12개를 최종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논문에 대해 1차 분석을 한 후 치료사의 음악선택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게 기술된 5개의 논문에 대해 2차 분석을 하였다. 논문 선택 과정 및 선정 단계에 따른 논문의 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찰을 위한 논문들은 내담자 기본정보, 내담자의 진단명 혹은 이슈, 세션에서 사용한 음악정보, 선곡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논문으로 12개가 선택되었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의 문헌고찰은 GIM치료사들의 음악선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선택된 논문의 대부분은 사례연구였다. 해당 사례연구에는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필요, 이슈, 치료의 주제가 기술 되어있고, 내담자에게 제공된 음악정보가 밝혀져 있었다. 연구에 따라 치료사의 음악 선택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기도 하였으나 모든 논문에서 필수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다(〈그림 2〉 참조).

	Summer (1981)	Pickett (1992)	Short & Gibb (1992)	Skaggs (1992)	Stokes (1992)	Tasney (1993)	Schulberg (1997)	Skaggs (1997)	Hearns (2009)	Park-Maier (2010)	Summer (2011)	Clements-Cortés (2013)	
내담자 기본정보(성별, 연령)	V	V	V	V	V	V	V	V	V	V	V	V	
내담자의 진단명 혹은 이슈	V	V	V	V	V	V	V	V	V	V	V	V	
세션에서 사용한 음악정보 (곡명, 장르 등)	V	V	V	V	V	V	V	V	V	V	V	V	
선곡에 대한 이유	V	V	V	V	V	V	V	V	V	V	V	V	
음악요소와 연관 지어 선곡의 이유 설명			V	V				V	V	V			

〈그림 2〉 선별된 12개의 논문 선별의 기준(우측)과 논문별 조건 충족 현황(V)

최종 선택된 12개의 논문에는 GIM 치료에서 세션에서 제공된 음악정보와 선곡의 이유가 밝혀져 있었다. 12개의 논문은 크게 음악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와 치료사가 개별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경우로 나뉘었다. 음악사용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프로그램 사용의 경우와 개별적 음악사용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러 개의 클래식 곡을 연속적으로 들려주는 음악프로그램(별첨 자료 참고)을 사용한 논문들의 내용은 〈표 1〉이며,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치료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곡을 사용한 논문들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1차 분석 중 음악 프로그램이 제공된 논문 (N=4)

연구자	년도	내담자 정보			음악정보		
		대상	형태	진단/이슈	인입된 음악형태	음악종류	선택이유
Pickett	1992	성인여성	개별	우울증	음악프로그램*	Mostly Bach Program	심상경험 지속
						Death/Rebirth Program	애도 이슈 반영
						Mostly Bach Program	내면탐색 촉진
Stokes	1992	성인여성	개별	알콜중독	음악프로그램	Grieving Program	죽음이슈 반영
						Nurturing Program	공허함에 대한 직면을 지지
						Mostly Bach Program	감정에 대한 탐색 지지
Tasney	1993	성인여성	개별	심리적 외상	음악프로그램	Emotional Expression I Program	분노감정을 지지
						Death/Rebirth Program	정체성 변화촉진
Clements-Cortés	2013	성인여성	개별	상실감 탐색	음악프로그램	Grieving Program	상실감 이슈 반영

*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들로 구성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명칭이 붙여 있음. Bonny program, music program으로 혼용하기도 함. Helen Bonny가 처음 개발한 12개의 음악프로그램 이후 프로그램이 추가, 변형되기도 하였고, 고도로 훈련된 GIM 치료사들의 경우 음악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여기도 함.

〈표 1〉의 음악프로그램에 수록된 곡 목록은 별첨자료 참조.

〈표 2〉 1차 분석 중 개별적 음악이 제공된 논문 (N=8)

연구자	년도	내담자 정보			음악정보		
		대상	형태	진단/이슈	언급된 음악형태	음악종류	선곡이유
Summer	1981	노인 (요양시설 거주)	그룹	-	개별적인 곡*	그룹에게 친숙한 곡 Mendelssohn, Agitation, Op.53, No.3	기분의 특색 반영 분노의 정서 지지
Short & Gibb	1992	노인	그룹	신체장애	개별적인 곡	친숙한 클래식 곡	내담자의 기분상태, 이슈반영 에너지 수준 반영
Skaggs	1992	성인남성	개별	혼란스러움	개별적인 곡	Haydn, Cello Concerto in C Holst, The Planet Mars	안전감 제공 내담자의 분노감정 지지
Schulberg	1997	성인여성 (홀로코스트 겪음)	그룹	심리적 외상	개별적인 곡	Remembrance (윈들러리스트 OST)	음악의 배경이 갖는 의미 공유하여 감정 탐색
Skaggs	1997	성인남성	개별	암	개별적인 곡	Brahms, Symphony 1 Beethoven, Piano Concerto No.5, Adagio	내담자의 분노 감정 반영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요람(cradle)의 느낌 제공
Patk-Maier	2010	성인여성	개별	-	개별적인 곡	비클래식 연주곡 Bach, Shepherd's Song from the Christmas Oratorio, BWV, 248	내담자의 심상경험의 유지
Hearns	2009	성인여성	그룹	심리적 외상	개별적인 곡	Barber의 Adagio for Strings Clara J. W. Schumann, Piano Concerto	심상 경험의 확장을 위해 여성 작곡가의 곡을 경험하면서 여성이 가진 힘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ummer	2011	성인 남녀	개별	-	개별적인 곡	클래식 곡 켈트족의 민속곡, ISIS	내담자의 현재 상태 반영 위해 가사의 의미 공유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 음악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것으로 치료사가 1, 2곡 혹은 소수의 곡을 선택하여 음악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1. 1차 분석: 음악프로그램 사용 vs 개별적 음악사용

1) 음악 프로그램 선택 기준

음악프로그램을 사용한 4개의 논문, 9개의 선곡의 경우에는 음악선택에 대한 이유가 연결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기술, 사용한 음악프로그램의 이름, 프로그램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위주로 기술되어 있었다. 음악선택에 대하여 명시된 12개의 논문 중 음악프로그램을 선곡한 4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음악프로그램에서 GIM 치료사의 선곡에서의 고려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내담자의 이슈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주제를 연결한 선곡이다. 특히 Grieving, Death/Rebirth 프로그램의 경우, 내담자의 죽음, 애도의 이슈를 위해 직접적으로 선택되었다. Clements-Cortés(2013)는 학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내담자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고립, 가족의 지지 부족에 대한 상실감 탐색을 위해 Grieving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Pickett(1992)는 우울증을 가진 성인 여성의 반복적인 애도 이슈를 다루기 위해 Death/Rebirt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tokes(1992)는 극심한 외로움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알콜에 의존하는 성인여성 내담자의 죽은 동생에 대한 애도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Grieving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둘째, 내담자의 심리정서 상태를 지지하기 위한 선곡이다. Tasney(1993)는 어린 시절 학대 경험으로 인한 외상을 가진 성인여성 내담자의 분노 감정을 지지하기 위해 Emotional Expression I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Stokes(1992)는 우울한 상태로 세션에 온 여성 내담자에게 Nurturing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공허함(emptiness)에 대한 직면을 돕고 지지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내담자의 심층 내면작업을 지지하기 위한 선곡이다. Tasney(1993)는 내담자의 정체성의 변화의 성장을 위해 Death/Rebirt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ickett(1992)는 자신의 연구에서 여성 내담자의 심상경험의 지속을 위해 Mostly Bach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Mostly Bach 프로그램은 대부분 Bach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칙적인 구조의 Bach 음악은 내담자의 심상경험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Stokes(1992)와 Tasney(1993) 역시 내담자의 내면탐색을 지지하기 위해 세션의 초반에 Mostly Bac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개별적 음악 선택 기준

개별적 음악이란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음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일부 곡을 사용하거나 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선곡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GIM 치료사는 개별적 음악 선곡 시 내담자의 특성과 음악의 특성 두 가지 차원을 분석적 요소로 고려하여 선곡을 하였는데, 12개의 연구 중 8개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음악정보와 선곡의 이유는 <표 2>와 같다. 8개의 연구, 14개의 선곡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고려 점은 내담자의 심리 정서 상태이다. 이는 내담자의 기분, 감정, 정서, 느낌의 특성, 에너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는 것이다. Summer(1981)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그룹의 기분의 특색(qualities)을 반영하기 위해 그룹에 친숙한 곡을 사용하였고, Short와 Gibb(1992)는 내담자의 기분상태를 고려하여 친숙한 클래식을 1, 2곡 정도 사용하였다. 즐거움, 기쁨 등의 정적 정서 외 분노 감정에 대한 지지로도 음악을 사용하였는데, Summer(1981)은 동일한 노인 그룹과의 세션에서 그룹원들이 공통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Mendelssohn의 *Agitation, Op. 53, No. 3*을 선택하였다. Skaggs(1992)는 삶에서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성인 남성과의 세션에서 심상 경험 도중에 표현된 내담자의 분노 감정을 지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Holst의 *The Planet* 중 *Mars*를 선택하였다. 1997의 연구에서는 말기 암을 가진 성인 내담자와의 GIM 세션에서 내담자의 분노에 관한 심상이 주는 기분과 비슷한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음악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곡하였는데, 저음부에서 강렬한 박이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Brahms의 *Symphony No. 1*을 선택하였다. 특히 Summer(2011)는 그녀의 연구세션에서 음악선택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세션초기에 파악된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오디오 자료에서 15곡 정도를 세션 과정에서 선택하여 음악풀(pool)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내담자의 현재의 상태를 음악의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멜로디, 화성, 리듬, 박자, 음색, 음역, 다이내믹, 악구(phrasing)등을 고려하여서 선곡을 하였다. 한곡 혹은 그 이상 내담자에게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동일한 곡을 1회 이상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고려 점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 정서적 요소이다. 이는 내담자가 필요로 하거나 치료사에게 요구하는 심리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음악을 선곡하는 것인데, 아직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 정서를 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선곡과 구분될 수 있다. Skaggs(1992)는 내담자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해 Haydn의 *Cello Concerto in C Adagio*를 선곡하였는데, 첼로의 음색은 돌봐주는 듯한 여성의 특색과 강한 남성의 특색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Haydn의 *Cello Concerto in C Adagio*는 이러한 음색이 가진 특징과 함께 명백한 음악적 구조를 통해 내담자에게 안전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Skaggs(1997)는 또한 말기 암을 가진 성인 내담자와의 GIM 세션에서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요람(cradle)의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Beethoven의 *Piano Concerto No. 5 Adagio*를 선곡하였다. 이 곡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악구로 인해 아기를 달랠 때의 좌우로 흔들어 주는 요람의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곡의 이유를 밝혔다.

세 번째 고려 점은 내담자의 심상경험의 방향성이다. 심상경험에 초점을 맞추거나 유지하는 것을 돕고 더 나아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악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곡하였다. Paik-Maier(2010)는 GIM 훈련원(trainee)의 GIM 치료 사례에 관해 기술하였는데, GIM의 응용된 형태인 지지적 음악 심상(SMI,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기법에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심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피아노와 첼로의 단순한 악기구성, 명료한 음악의 구조를 가진 곡을 선

택하였다. 단순한 음악 요소, 구조가 분명한 곡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내담자의 이슈와 문제 보다는 개인의 즐거운 경험, 기억 등의 긍정적 자원 지지하고 하나의 심상의 특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Hearn(2009)는 어린 시절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과의 GIM 그룹 세션에서 내담자들이 심상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할 수 있도록 음악의 폭이 좁고 음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구조의 곡인 Bach의 *Shepherd's Song from the Christmas Oratorio, BWV. 248*을 선택하였다. 다른 회기에서 심상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길고, 크레센도(crescendo)와 디미누엔도(diminuendo)가 점점 더해지고, 음악의 폭이 넓은 Barber의 *Adagio for Strings*을 선택하였다.

네 번째 고려 점은 이슈와 관련된 내담자의 주요 배경이다. Hearn(2009)는 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여성그룹의 세션에서 여성 음악가인 Clara J. W. Schumann의 *Piano Concerto*를 선곡하여 여성이 가진 힘에 대해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Schulberg(1997)는 여성그룹과의 세션에서 내담자의 배경을 고려한 선곡을 하였는데, 이 그룹은 어린 시절에 나찌(Nazi)의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외상의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미해결된 외상은 개인화를 위한 분리를 어렵게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그룹 세션에서 내담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경험한 상실에 대해 나누었고, 치료사는 내담자들이 표현한 상실감을 탐색하고 다루기 위해 영화 선들러리스트의 주제가인 *Remembrance*를 선곡하였다.

2. 2차 분석: 음악요소에 대한 고려점

최종 선택된 12개의 논문에 대해 1차 분석 결과 이 중 5개의 논문에서 음악선곡에 있어서 치료사의 의도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사용의 이유와 음악 선택에 대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5개의 논문의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재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은 모두 개별적 음악을 선택하고 있었고 해당 논문들에서 선곡을 위해 고려한 내담자들의 기분, 정서, 느낌 등의 심리정서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세션의 방향에 따른 음악 선곡 시 음악요소를 분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Summer(1981)의 논문에서 그룹의 분노정서를 지지하기 위해 Mendelssohn의 *Agitation, Op. 53, No. 3*을 사용한 경우와 Skaggs(1992)의 논문에서 역시 동일한 이유로 Holst의 *The Planet Mars*를 선곡한 것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 적용의 의도는 명백하나,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재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Schulberg(1997)와 Hearn(2009)의 논문에서 내담자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영한 부분은 음악요소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총 5개의 논문이 분석 대상이 되었고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차 분석 결과표

연구자	년도	음악정보	고려된 음악요소	내용	치료사의 의도
Short & Gibb	1992	클래식 곡	악기의 구성	많은 악기로 구성된 곡	높은 에너지 수준에 맞추기 위해
Skaggs	1992	Haydn, Cello Concerto in C	주악기의 음색	첼로의 부드러움	안전감 제공
			속도	규칙적, 일정함	
Skaggs	1997	Brahms, Symphony 1	구조	명백함	분노감정 반영
			음역	저음부	
			박	강렬함	
			음색	부드러움	
Paik-Maier	2010	첼로 연주곡	악기	반복적	내담자가 원한 요람(cradle)의 느낌 반영
			악기구성	피아노와 첼로	
Hearns	2009	Bach, Shepherd's song	구조	단순한 구조의 반복	심상경험 유지
			음역	좁은 음역	
			발전(development)	발전이 적음	
			곡의 크기 변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Hearns	2009	Barber, Adagio for string	음역	넓은 음역	심상경험 확장
			멜로디	단순	
			주제	단순, 반복	
Hearns	2009	켈트족 민속곡, ISIS	주제	단순, 반복	안전감 제공

〈표 3〉에서 요약된 내용을 보자면, 5개의 논문에서의 GIM 치료사들은 선곡에 있어 치료사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요소를 분석하여 음악선택의 근거로 고려하고 있었다. GIM 치료사들의 곡 선택은 다양하고 분석적이었으며, 곡이 가진 음악의 요소를 내담자의 상태와 세션의 방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선곡을 위해 적용하였다. 고려된 음악의 요소는 악기의 구성, 악기의 수, 반복성 음색, 속도, 곡의 구조, 음역, 발전(development), 악상의 변화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연구들 간 중복되는 음악의 요소를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고려된 음악의 요소가 같을지라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음악요소가 가진 각기 다른 속성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음역의 경우 세 명의 다른 치료사가 선곡에서 고려한 공통된 음악요소였으나, Skaggs(1997)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분노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저음부의 음악을 선택하였고, Hearn(2009)는 심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해 좁은 음역대의 연주를 선곡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담자와의 다른 세션에서는 심상경험의 확장을 위해 넓은 음역의 곡을 선곡하였다.

반면, 비록 고려된 음악요소와 선택 기준은 다양하여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음악 요소에 따른 속성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치료사는 내담자가 심상경험 혹은 심리정서상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음악의 발전이 적고, 곡과 악기의 구성이 단순한 곡을 선곡하였다. 또한 음폭이 좁고, 주제가 반복되어 내담자의 심상과 정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반면 경험의 확장, 발전을 위해서는 음폭이 넓고, 곡 내에서의 연주의 크기 변화가 많은 등 변화의 폭이 큰 곡을 선택하였다. 내담자의 정적정서의 지지를 위해서 부드러운 음색, 악구가 반복되는 곡을 선곡하였고, 분노 등의 부정적정서의 지지를 위해서 하위분할이 많고, 박자가 빠른 특징을 가진 음악을 선곡하였다.

〈표 4〉 2차 분석결과 GIM 치료사들이 고려한 음악요소의 속성의 예

음악 요소	속성의 범주		
음역	좁다	↔	넓다
	낮다	↔	높다
악기의 수	독주곡	↔	협주곡
음악의 layer	적다	↔	많다
구조	명료하다	↔	모호하다
	단순하다	↔	복잡하다
곡의 발전	작다	↔	크다
크기변화	작다	↔	크다
악구의 반복	적다	↔	많다
주제의 반복	적다	↔	많다

〈표 4〉는 〈표 3〉에서 분석된 5개의 논문에서 치료사들이 선곡의 이유로 고려하고 있는 음악의 요소, 적용 내용, 치료사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속성의 차원으로서, 2차 분석을 하는 동안 확인한 음악선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속성의 좌우 축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심상경험 혹은 정서경험의 강렬하고, 복잡, 확장하는 성질을 반영할 수 있고 좌측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단순, 유지되는 성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음악요소를 분석하여 GIM 세션에 적용하고자 한 Summer의 음악분석 제안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는데, 그녀는 속성의 좌측을 지지적, 잡아주는(holding)으로 우측은 재구성적, 자극하는(stimulating)으로 범주화 하였다(정현주, 2006).

음악을 선택 할 경우에 〈표 4〉에서 제시된 모든 음악요소와 속성이 적용되기 보다는 치료사와 내담자에게 주요한(salient) 음악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음악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치료사의 직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언급되었으나 재분석에서 제외된 음악의 경우 감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음악요소로, 수평적인 축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보다 직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에서 속성의 좌우 축에 사용한 용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술이므로, 보다 정확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자료검색 이후 〈그림 1〉의 선별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된 12개의 연구에는 GIM 치료의 실제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이 포함되었다. 음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57개의 연구 중 음악선택에 대한 치료사의 이유가 기술되지 않은 42개의 문헌은 제외되었으며, 12개의 논문을 1차 분석한 결과 GIM 치료사들의 음악선택에 대하여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1차 분석에서 12개의 논문은 크게 음악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음악을 선택한 경우로 나뉘었다. 음악프로그램을 선택한 연구에서 GIM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이슈와 프로그램의 주제를 연관지어 선택하였고, 내담자의 심리정서 상태 지지 및 심층적 내면작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곡을 하였다. 음악프로그램 사용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다. 개별적 음악프로그램 사용의 경우에서 GIM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심리정서상태,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정서 상태, 내담자의 심상경험의 방향성, 내담자의 이슈와 관련된 주요 배경을 고려하여 선곡 하였다. 내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션의 방향성을 고려한 음악 요소의 적용에 대해 분석적으로 기술하여 연구자로서 음악선택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분석에서 개별음악 사용이 명시된 논문 중 내담자의 상태, 음악정보, 선택의 근거로 고려된 음악요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음악요소, 내담자

의 상태, 음악적용에 있어서 치료사의 주관적 선택 등의 다양성이 있었으나, 심상, 정서 경험의 특색을 음악요소에 대입하여 고려하고 있는 치료사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onny가 언급한 내담자의 상태에 음악을 맞추는(matching) 것과 동일한 메카니즘이었다. 또한 내담자의 특성과 음악 요소의 개연성을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연구자는 음악 선택의 근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Hearns, 2009; Paik-Maier, 2010; Short & Gibb, 1992; Skaggs, 1992, 1997).

본 연구를 통해 음악선택을 위해 고려되는 내담자의 상태, 특성, 대상 및 음악선택 근거의 예 이외에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GIM 문헌을 고찰한 결과, 사례연구의 특성상 연구자 고유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고, 세션에서의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역시 추상적인 용어로 기술된 경우가 많아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GIM 다수의 사례연구에서는 GIM 세션에서 내담자가 체험하는 심상경험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음악은 내담자의 심상에 정서를 부여하고,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GIM에서의 심상경험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영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사 고유의 시각과 철학이 필요하며, 각 치료사의 스키마와 임상가로서의 배경, 치료 철학 등에 따라 주관성에 의해 질적으로 기술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각 사례연구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반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이렇듯 고찰된 다수의 GIM 사례연구들은 질적연구로서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심층적 이해를 살펴볼 수 있었던 반면, 음악선택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음악을 제공한 이후의 내담자의 심상반응을 기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GIM이 음악중심(music-centered) 음악심리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선택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기술되지 않는 것은, GIM 분야 이외의 음악치료학, 치료학, 기타 관련 학문분야와 소통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GIM 사례연구의 대부분은 음악과 심상 협회(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에서 발간하고 있는 JAMI(Journal of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에 수록되어 있으며, JAMI를 제외한 기타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에서는 GIM의 사례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GIM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치료사 및 연구자들은 GIM에서 음악의 역할과 음악 선택이 곧 GIM 치료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 문헌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Bonny, 1998, 1999; Summer, 2010; Grocke, 1995). 반면 실제 치료사들의 임상현장에서는 내담자를 위한 치료사의 음악 선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론과 치료 실제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추후 연구로 GIM에서의 음악치료사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음악을 선택하고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 뿐 아니라 보다 기초단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치료에 대한 근거를 얻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근간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학문적 시도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현주 외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06). 정신분석적 및 존재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GIM 음악분석. **음악치료교육연구**, 3(2), 59-68.
- Accordino, R., Comer, R., & Heller, W. B. (2007). Searching for music's potential: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earch on music therapy with individuals with autism.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1(1), 101-115.
- Altshuler, I. M. (1945).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musical therapy. *The Educational Music Magazine* 24, 16-17.
- Bonde, L. O. (2005). "Finding a new place..." metaphor and narrative in one cancer survivor's BMGIM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4(2), 137-154.
- Bonny, H. L., & Pahnke, W. N. (1972). The use of music in psychedelic (LSD) psycho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9(2), 64-87.
- Bonny, H., & Tansill, R. (1977). Music therapy: A legal high. In G. Waldorf (Ed.), *Counseling therapies and the addictive client* (pp. 113-130). Baltimore, MD: The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and Community Planning.
- Bonny, H. L. (1989). Sound as symbol: Guided imagery and music in clinical practice. *Music Therapy Perspectives*, 6, 7-10.
- Bonny, H. L. (1998). *The role of taped music programs in the GIM process: Theory and product*. GIM monograph #2. ICM Books.
- Bonny, H. L. (1999). Facilitating guided imagery and music sessions. In L. Summer (Ed.), *Music and consciousness: The evolution of guided imagery and music(GIM)* (pp. 269-298).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onny, H. L. (2002). The role of taped music program in the GIM process. In L. Summer (Ed.), *Music and consciousness: The evolution of guided imagery and music* (pp. 299-324).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2002). The boundaries of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and the Bonny method. In K. E. Bruscia (Ed.), *Guided imagery and music: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p. 37-62).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 Grocke, D. E. (2002). *Guided imagery and music: The Bonny method and beyond (Vol. 1)*.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unt, L. (1994). *Music therapy: An art beyond wards*. London: Routledge.

- Clarkson, G. (1994). Learning through mistakes: Guided imagery and music with a student in a hypomanic episod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77-94.
- *Clements-Cortés, A. (2013). Freeing the voice within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Canadian Music Educator*, 55(1), 19-24.
- Fink, A. G. (2005). *Conducting research literature review: From the internet to paper* (2nd ed.). Thousand Oaks: Sage.
- Goldberg, F. S. (1992). Images of emotion: The role of emotion in guided imagery and mus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5-17.
- Gouk, P. (2001). Objective science or just a metaphor? The 'Iso' principle of Ira Altshuler.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0(1), 65-68.
- Grocke, D. E. (2010). An overview of research in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Voice: A World Forum Music Therapy*, 10(3). Retrieved from <https://voices.no/index.php/voices/article/viewArticle/340/429>.
- *Hearns, M. (2009). Journey beyond abuse: Healing through music and imager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2, 47-60.
- Hilliard, R. E. (2005). Music therapy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 revise of the empirical data.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2), 173-178.
- Jallo, N., Ruiz, R. J., Elswick, R. K., & French, E. (2014). Guided imagery for stress and symptom management in pregnant African American wome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1), 1-13.
- Kapoor, V. G., Bray, M. A., & Kehle, T. J. (2010). School-based intervention: Relaxation and guided imagery for students with asthma and anxiety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4), 311-327.
- Kasayka, R. E. (1991). To meet and match the moment of hope: Transpersonal elements of the guided imagery and music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Health, Nursing, and Arts Professions.
- Kenny, C. B. (1987). The field of play: A theoretical study of music therapy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 Krout, R. E. (2007). The attraction of the guitar as an instrument of motivation, preference, and choice for use with clients in music therap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Arts in Psychotherapy*, 34, 36-52.
- Muller, B. (2010). Guided imagery and music: A survey of current pract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USA.

- *Paik-Maier, S. (2010).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method. *In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10*(3).
- *Pickett, E. (1992).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with a dually diagnosed woman having multiple addic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55-68.
- *Schulberg, C. H. (1997). An unwanted inheritance: Healing transgenerational trauma of the Nazi Holocaust through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The Arts in Psychotherapy, 24*(4), 323-345.
- Sherratt, K., Thornton, A., & Hatton, C. (2004). Music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dement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ing and Mental Health, 8*(1), 3-12.
- *Short, A. E., & Gibb, A. E. (1992). Music and imagery with physically disabled elderly residents: A GIM adaption. *Music Therapy, 11*(1), 65-98.
- *Skaggs, R. (1992). Music as co-therapist: Creative resources for chang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77-84.
- *Skaggs, R. (1997).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in the treatment of terminal illness: A private practice setting. *Music Therapy, 15*, 39-44.
- *Stokes, S. J. (1992). Letting the sound depths aris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69-76.
- *Summer, L. (1981). Guided imagery and music with the elderly. *Music Therapy, 1*(1), 39-42.
- Summer, L. (1998) The pure transference in guided imagery and music, In K. E. Bruscia (Ed.), *The dynamics in music psychotherapy* (pp. 431-460).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
- Summer, L. (2002). Music listening sheet. [Practicum material]. Level 1 training, Level 2 train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Summer, L. (2008). Personal music and imagery [Class handout]. Anna Maria College Institute for Music & Consciousness / Ewha Womans University Level 1 Training, Level 2 Training. Seoul, South Korea.
- Summer, L. (2009). Client perspectives on the music in guided imagery and music.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www.mtphd.audk/digitalAssets/6/6467_lisa_summer_thesis.pdf
- Summer, L. (2010). Personal music and imagery [Class handout]. Ewha Womans University Level 3 Training. Seoul, South Korea.
- *Summer, L. (2011). Clients perspectives on the music in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6*, 34-74.

- *Tasney, K. (1993). Beginning the healing of incest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A Jungian perspectiv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35-47.
- Thelwell, R. C., & Greenlees, I. A. (2003). Developing competitive endurance performance using mental skills training. *Sport Psychologist*, 17(3), 318-337.
- Toomey, L. (1997). Literature review: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5, 75-103.
- Utay, J., & Miller, M. (2006). Guided imagery as an effective therapeutic technique: A brief review of its history and efficacy research.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3(1), 40-43.

* 표기가 된 참고문헌은 본 연구의 문헌고찰 대상으로 선정되어 1차 분석된 12개의 논문임.

제외된 참고문헌 (Bibliography of Excluded Articles)

- Abbott, E. (2005). Client experiences with the music in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BMGIM).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2, 1-35.
- Blake, R. L. (1994). Vietnam veteran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indings from a music and imagery projec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5-17.
- Bonde, L. O. (2007). Imagery, metaphor, and perceived outcome in six cancer survivors'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BMGIM) therapy. In A. Meadows (Ed.),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A monograph series Volume 3*, (pp. 132-164). Gilsum, NH: Barcelona Publication.
- Borling, J. E. (1992). Perspectives on growth with a victim of abuse: A guided imagery and music(GIM) case stud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85-98.
- Bush, C. (1988). Dreams, mandalas, and music imagery: Therapeutic uses in a case study. *The Arts in Psychotherapy*, 15(3), 219-225.
- Cardin, L. (2009). Dying well: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at end of life. *In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9(1).
- Clarkson, G. (1994). Learning through mistakes: Guided imagery and music with a student in a hypomanic episod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77-94.

- Clarkson, G. (1995). Adapting a guided imagery and music series for a nonverbal man with autism.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4*, 121-138.
- Clarkson, G. (2005). Enhancing Bonny method sessions with subtle energy heal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0*, 27-43.
- Goldberg, F. S., Hoss, T. M., & Chesna, T. (1988). Music and imagery as psychotherapy with a brain damaged patient: A case study. *Music Therapy Perspectives, 5*(1), 41-45.
- Goldberg, F. S. (1994).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as individual and group treatment in a short-term psychiatric hospit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18-34.
- Hale, S. E. (1990). Sitting on memory's lap. *The Arts in Psychotherapy, 17*(3), 269-274.
- Hale, S. E. (1992). Wounded woman: The use of guided imagery and music in recovering from a mastectom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 99-106.
- Holligan, S. F. (1994). Guided imagery and music in spiritual retreat.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 3*, 59-68.
- Lewis, K. (1993). Using guided imagery and music to clarify and support relationship changes: A case stud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87-98.
- Nolan, P. (1983). Insight therapy: Guided imagery and music in a forensic psychiatric setting. *Music Therapy, 3*(1), 43-51.
- McKinney, C. H. (1993). Multidimensional growth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99-110.
- McKinney, C. H., Antoni, M. H., Kumar, M., Tims, F. C., & McCabe, P. M. (1997). Effects of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therapy on mood and cortisol in healthy adults. *Health Psychology, 16*(4), 390-400.
- Merritt, S. (1993). The healing link: Guided imagery and music and the body/mind connec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14-28.
- Powell, L. T. (2007). An adaptation of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for public schoo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11*, 65-78.
- Ritcher, D. (1993). GIM applied to the 50-minute hour.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29-34.
- Short, A. (1991). The role of guided imagery and music in diagnosing physical illness or trauma. *Music Therapy, 10*(1), 22-45.
- Short, A. E. (1993). GIM during pregnancy: Anticipation and resolu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73-76.

- Thöni, M. (2002). Guided imagery and music in fifty minute sessions. A challenge for both patient and therapist.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1(2), 182-188.
- Trondalen, G. (2010). The flute and I: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with a young man. *In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10(3).
- Ventre, M. (1994). Guided imagery and music in process: The interweaving of the archetype of the mother, mandala, and music. *Music Therapy*, 12(2), 12-18.
- Walker, V. R. (1993). Integrating guided imagery and music with verbal psychotherapy: A case stud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111-121.
- Weiss, J. G. (1994). Accessing the inner family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49-58.
- Wrangsjö, B. (1994). Psychoanalysis and guided imagery and music(GIM): A comparis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3, 35-48.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자료

- Bonny, H. L. (2002). The role of taped music program in the GIM process. In L. Summer (Ed.), *Music and consciousness: The evolution of guided imagery and music* (pp. 299-324).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게재신청일: 2014. 04. 11.
- 수정투고일: 2014. 05. 19.
- 게재확정일: 2015. 05. 27.

별첨자료

본문에 소개된 음악프로그램

Nurturing

Britten, *Simple Symphony*, (Sentimental Sarabande)

Vaughan-Williams, *Rhosymedre* (Prelude)

Berlioz, *L'Enfance du Christ* (Shepherd's Farewell, Chorus)

Puccini, *Madame Butterfly* (Humming Chorus)

Massenet, *Scenes Alsaciennes* (Sous les Tilleuls)

Canteloube, *Songs of the Auvergne* (Brezairola)

Death-Rebirth

Wagner, *Götterdämmerung* (Siegfried's Funeral March)

Rachmaninoff, *Isle of the Dead*

Bach, *B Minor Mass* (Crucifixus)

Mahler, *Das Lied von der Erde* (Der Abschied)

Emotional Expression I

Brahms, *Second Piano Concerto* (Allegro non troppo)

Brahms, *Requiem* (Part I, Part V)

Brahms, *Fourth Symphony* (Andante moderato)

Mostly Bach

Bach, *Passacaglia and Fugue in C minor*

Bach, *Come Sweet Death*

Bach, *Partita in B minor* (Sarabande)

Bach, *Little Fugue in G minor*

Brahms, *Violin Concerto* (Adagio)

Bach, *Concerto for Two Violins* (Largo)

Grieving

Rodrigo, *Concerto De Arangues* (Adagio)

Grieg, *Holberg Suite* (Air)

Dvorak, *Four Romantic Pieces* (Larghetto)

Bach, *Prelude in E flat minor*

Dvorak, *Czech Suite (Romanze)*

Marcello, *Oboe Concerto in C minor*